

# “환치기 막느라”... 키움증권, 환율 우대 이벤트 종료 ‘잡음’

관련 이벤트 사전고지 없이 끝내 사측, 환차익 악용 사례 생겨 조치 투자자 “악용 여부 판단되나” 반발 일부 투자자 혜택복구... 차별 지적

키움증권이 ‘이종통화 환전수수료 95% 우대 이벤트’를 엔화 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전고지 없이 종료해 잡음이 일고 있다. 또 특정 조건을 갖춘 투자자를 대상으로 환율 우대율을 복구해 고객 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키움증권은 일부 고객에게 ‘일본 주식의 매매 없이 환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엔화의 반복적인 매수, 매도가 확인됐다’며 이종통화 환전수수료 95%

우대 이벤트 적용을 종료한다는 내용의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단, 이종통화 우대율은 13일부터 종료된다며 2거래일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최근 원·엔환율이 가파르게 떨어지자 미리 엔화를 사놓은 후 원·엔환율이 오르면 되팔아 차익을 챙기려는 투자자들이 늘어났다. 올해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추고, 일본도 마이너스 금리를 포기하게 될 경우 엔화 가치가 다시금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키움증권 등 환전수수료를 우대하는 증권사를 통해 환전할 경우 시중은행 대비 낮은 가격에 환전이 가능하다.

지난 16일 키움증권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투자자에 한해서 환율 우대율

을 기존 이벤트 내용으로 복구한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최근 6개월(2022년 6월~12월) 동안 미국 및 기타 국가 포함 약정이 있는 경우 ▲2023년 1월 11일 해외주식 평가금액이 있는 경우 등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다.

키움증권은 정상적인 거래를 제한한 게 아니라 환율 우대율 이벤트를 악용하는 사례가 생겨 해당 조치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상황의 유연한 대처를 위해 부서 간의 협의 끝에 특정 조건을 갖춘 투자자에게만 환율 우대율을 다시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해당 이벤트는 회사 자체적으로 역마진을 감안하면서도 (주식을 매수하기 전) 실제 매매를

하려고 환전하는 고객들을 위해 마련된 이벤트”라며 “매매없이 이른바 환치기 수법을 주기적으로 하는 투자자들이 발견됐다. 앞서 이벤트 유의사항에서도 거래 없이 반복적인 환차익을 취하거나 매매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환전이 제한될 수 있다고 미리 명시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은 실제로 매매를 하려는 사람과 단순 환치기를 위해 환전을 한 사람을 키움증권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엔화가격이 낮아서 (주식 매수 전) 미리 환전을 해둔 것뿐인데, 환차익 목적의 투자자로 오인을 받은 셈”, “고객센터에 항의전화하고 타증권사로 갈아타자 은근슬쩍 환율 우대율을 복구

해준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단순히 환차익만을 위한 증권사를 통한 환전은 ‘외국환 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환전수수료를 우대하는 증권사를 통해 환전할 경우 시중은행 대비 낮은 가격에 환전이 가능해 환차익을 노린 거래가 유난히 빈번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증권사에서는 외화상품 투자 목적이 아닌 단순 환전이 안 된다. (외환법) 위반 소지에 대한 책임이 증권사에 있다 보니, 증권사들이 최근 엔화 하락에 따른 단순 환전 세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 2만1000달러선 뚫은 비트코인... 코인株 또 ‘들썩’

비트코인 회복세에 시장 온기 이달 들어 거래대금 두배 늘어 우리기술투자 등 관련주 강세

가상화폐(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2만1000달러선을 회복한 가운데 국내 증시 상장 종목 중 가상자산거래소 관련주 일명 ‘코인주’가 들썩이고 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비덴트는 전일 대비 255원(5.88%) 오른 4595원에 거래를 마쳤다. 비덴트는 빙썸홀딩스(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빙썸을 운영하는 빙썸코리아의 대주주)의 대주주로 가상화폐 관련주로 분류된다. 지난해 말까지만 하더라도 3085원에 마감했지만, 올 들어서만 주가가 이날까지 48.62% 오른 상황이다.

또다른 가상화폐 관련주인 우리기술 투자 역시 올해에만 25% 이상 급등했다. 우리기술투자도 국내 1위 거래소인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의 지분을 7.24% 보유하고 있어 대표 ‘코인주’로 일



비트코인이 상승밸리를 이어가며 2만1000달러를 돌파한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빙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세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켜어진다. 국내 종목뿐 아니라 해외 상장 종목 중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도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해있는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17일(현지시간) 8.32% 오른 54.14달러

를 장을 마쳤다. 또한 13만개 이상 비트코인을 보유한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가도 8.73% 오른 235.92달러까지 치솟았다.

최근 가상화폐 시세가 급등하면서 가상화폐 관련 상장사의 주가가 급등하는

것으로 보인다. 코인 시장중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은 2만 1279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글로벌 거래소 FTX의 파산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한 수치다. 국내

거래소에서도 업비트(2651만2000원)를 비롯한 빙썸 등 거래소에서 2600만원대 중반에 거래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글로벌 가상화폐 전체 시총이 8000억달러에 머물렀지만, 최근에는 1조달러선마저도 돌파한 상황이다.

특히 가상화폐 시장에 온기가 돌면서 국내 거래소의 거래대금도 회복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업비트의 지난해 마지막주(12월 25~31일) 일 평균 거래대금은 10억8800만달러(약 1조3500억원)였지만, 최근 일주일간 일일 평균 거래대금은 27억달러(약 3조3500억원)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여기에 비트코인의 추가하락 가능성이 낮으며, 연말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대비 금리 변수로 인한 가격 하방압력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일방향적인 하락은 마무리됐다는 판단”이라며 “추가 하락 우려가 있지만 DCG그룹 이슈, 마운트 콕스 이슈 등의 리스크가 해소된다면 연간으로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영성 기자 ysl@

# 미래에셋자산운용 인도법인 15주년... 운용 자산 100배 증가

印 내 유일 독립 외국자본 운용사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인도법인이 인도 진출 15주년을 맞이했다고 18일 밝혔다.

2008년 1호 펀드를 출시하며 인도 시장에 본격 진출한 미래에셋자산운용 인도법인은 현재 인도 내 유일한 독립 외국자본 운용사다.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글로벌 자산운용사가 인도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합작법인으로 전환했으나, 미래에셋은 인도의 성장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지속해왔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인도법인 수탁고는 약 21조원을 기록했다. 설립 당시 2000억원에 불과했던 수탁고에 비해 100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최근 인도법인의 리테일 계좌 수도 2020년 280만개에서 2021년 470만개, 2022년 말 550만개로 급성장하는 추세다.



미래에셋그룹 박현주 회장과 미래에셋자산운용 인도법인 관계자들이 인도 진출 15주년을 맞이하여 뭄바이 현지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지난 15년간 미래에셋자산운용 인도법인은 신흥국을 대표하는 인도 시장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고 다양한 비즈니스를 펼쳐왔다. 앞서 2019년에는 인도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 지주사 체제로 전환, 펀드 운용뿐 아니라 부동산 대출과 벤처캐피털, 자산관리 서비스까지 사업 범위를 확장했다.

최근에는 인도에서 가장 광범위한 분

야인 물류센터에 투자하는 등 폭넓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인도에 진출한 외국계 자산운용사 현지법인이 물류 사업에 직접 투자한 것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처음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인도법인은 인도의 높은 경제성장률과 인도 정부의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에 따라 미래 성장성이 높은 물류센터와 데이터센터 등에 적극 투자할 계획이다. /원관희 기자 wkh@

# DL이앤씨, 소형모듈원전 사업 속도 美 엑스에너지에 250억 전략적 투자

SMR 플랜트 사업 개발 협력 사업 연계해 글로벌 시장 진출

DL이앤씨가 탈탄소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소형모듈원전(SMR) 사업 진출에 본격적인 속도를 내고 있다.

DL이앤씨는 미국 SMR 개발사인 엑스에너지(X-Energy)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DL이앤씨는 2000만 달러(약 250억원)를 투자해 엑스에너지가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인수한다. 이번 전략적 투자에는 국내 원자력 주기기 업체인 두산에너지빌리도 참여한다.

엑스에너지는 물이 아닌 새로운 냉각재를 적용하는 비경수형 4세대 SMR 분야의 선두주자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고온가스로(HTGR) 분야에서 가장 앞서가는 개발사로 손꼽힌다.

DL이앤씨는 향후 엑스에너지와 SMR 플랜트 사업 개발을 협력하고 에너지 사업 분야에서 기회와 경쟁력을 더욱 확장할 계획이다.

엑스에너지의 SMR 기술은 전력 생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 활용성이 높아 DL이앤씨의 플랜트 사업과 연계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다는 전략이다.

유재호 DL이앤씨 플랜트사업본부장은 “엑스에너지의 SMR 기술은 다양한 산업에 활용할 수 있어 DL이앤씨의 플랜트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우리가 가진 BIM 및 모듈러 플랜트 설계 기술과 SMR 사업을 접목해 수소 및 암모니아 등 친환경 에너지원 개발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